

조계종 출가연령제한법 시행 1년... '제도보완' '폐지' 여론 고조

“부작용 많다” 확산에 대안모색

출가자 감소·교리적 모순 불구 기초교육은 향상

심층 면접·은사 보장제·제한연령 상향 등 해법론 다양

2004년 3월 26기 행자교육원부터 적용된 조계종의 40세 출가연령 제한 시행 1년이 지나면서 각종 부작용에 따른 제도보완 내지 폐지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2003년 9월 중앙종회 일반회과 과정에서 연령제한 정책의 '도입'과 '반대' 주장이 서로 나뉘어오르며 근거와 설득력을 가지고 팽팽히 맞섰던 것에 비하면 상당한 변화다. 당시 종회 교육분과위원장으로 제도 도입에 관여했던 영배 스님 조차 "공정회 등을 통해 나름대로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만들어진 제도지만, 최근 종단 안팎에서 폐지 또는 보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출가자의 질을 높이면서도 출가제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잃은 것과 얻은 것 출가자 연령 제한으로 인한 가장 큰 영향은 역시 출가자 인구의 감소다.

3월 16일 개원하는 28기 행자교육원 지원자는 210명 수준으로 지난해에 비해 50여명이나 줄었다. 문제는 이러한 감소추세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40세 출가연령제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4년 26·27기 행자교육원 입교자는 310명, 2002년 511명, 2003년 487명이 지원했던 상황과 비교하면 약 40%가 줄었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타종단의 출

가자는 상대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사회 유력인사나 전문직 고급자들이 출가할 수 있는 길이 사라졌다. 또 진(眞)발심자의 출가제한이 부처님의 출가정신을 훼손한다는 비난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반면, 출가연령이 젊어져 생기는 이점도 있었다. 무엇보다 기초교육의 질이 향상됐다는 것이 행자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사와 교육원 당국자들의 한결같은 전언이다. 교육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4-50대 출가자 중 일부가 대중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승가의 위계를 손상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출가자의 자질향상이라는 제도 도입의 가장 큰 목적이 얼마나 달성됐는가에 대한 판단은 아직 유보적이다.

■ 시행 1년, 승가구성원들의 반응

제도 도입 초기 출가연령 제한과 관련해 선원, 출원, 재가와 일반 사회인들은 매우 부정적 시각을 보인 반면, 중앙종회와 교육원, 강원 스님들은 제도 도입에 적극적이었거나 동조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1년이 지나면서 연령제한 목소리는 위축되는데 반해, 폐지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져 가는 양상이다.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은 출가연령제한에 여전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한층 누그러진 태도를 보였다. 친구·도반·정인·자유 스

님 등 종회 교육분과위원회 스님들은 "현실적인 면에서 출가자 연령 제한은 꼭 필요하다. 이에 따른 부작용이 있는 만큼 제도 보완은 필요하다"며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같은 교육분과 본각 스님은 강력한 반대 입장이다. 본각 스님은 "지금 와서 보면 그 당시 종회가 제도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졸속으로 도입한 것 같다"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놓았다. 본각 스님은 "45세, 50세 등 두부 자르듯 나이를 기준으로 출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출가 희망자의 진발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심층면접과 이를 명증할 수 있는 은사의 보장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출가의 가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기본선원의 2학년 과정을 지도하고 있는 백담사 선원장 신용 스님은 "이런 동안에 방부를 들인 학인 26명 가운데 40대 초반이 절반이지만 7일 옹매정진을 모두 성취했을 만큼 수행 열의가 높다"며 출가연령 제한의 부당함을 강변했다. 신용 스님은 "고학력 전문직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진발심 때 출가하려 할 때, 종단이 그 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수좌들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밝혔다.

제도 도입 초기 대다수 강원 교직자 스님들은 출가자 연령제한 문제에 대해 수긍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입장이 바뀌고 있음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다. 지난해 화엄사에서 열린 전국 강원교직자대회(회장 우진) 연수에 참가한 스님들 가운데 상당수는 출가연령제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동화사 강주 해월 스님은 <열반경>의 예를 들면서 "고령자의 출가를 막는 것은 부처님 근본설에도 어긋나지만, 그로인해 승가교육 현장에 얼마나 긍정적 변화를 끼쳤는지도

이론"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출원관계자들은 계율에 부합하지 않는 연령 제한의 부적절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제도 보완 등 대안 찾기 고심

지난해 4월 취임하면서부터 연령제한 문제와 관련, 부정적 입장을 피력해 왔던 교육원장 청화 스님은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을 비롯해 많은 스님들이 출가연령 제한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향후 열릴 임시 중앙종회에 관련 안건이 상정되면 본격적으로 재검토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교육원 정책 당국자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 당장 어떤 입장이나 대안을 내놓기는 어려워 보인다. 교육원이 올해 '승가교육제도 개선추진위원회' 출범·이하 승개추' 운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교육원은 정책 도입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종책 담당부서라는 점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승개추가 고령자 출가제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한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1월 26일 열린 승개추 3차 회의에서 추진위는 출가연령의 적정선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①상한선 현행대로 40세 유지 ②상한선 45-50세로 상향 ③상한선 현행유지를 전제로 진발심자는 심의 후 선별출가 ④상한선 현행유지하면서 연령초과자의 권리 제한 등 4가지 방안을 놓고 추진위가 구체적인 논의를 벌인 것이다.

교육부장 현관 스님은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천주교의 수사제도를 본뜬 승가내의 별도 역할을 만들어 고령출가자들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영배 스님도 구체적 수계 불가를 전제로 고령자 출가를 인정하는 대신 이들이 중승로써서 사찰 내에서 특정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자장율사의 맥 을곧게 잇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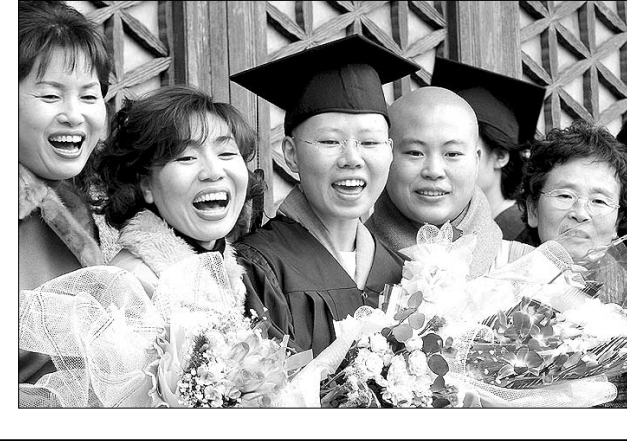
영축총림 통도사 3월에 율원 개원

자장 율사의 율맥이 살아 숨쉬는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에 통도 율원이 공식적으로 내달 문을 연다. 율원생 모집 공고를 낸 통도사 통도율원 개원은 자장 율사로부터 이어 내려오며 금강계단을 통해 수많은 정정율사를 배출해온 계율 근본 도량의 면모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것.

이번 통도율원 개원은 1984년 총림으로 지정된 이후 총림 내부적으로 운영해 오던 율원의 공식화를 의미하며 종단 대내외적으로 청정 계율의 중요성을 한층 더 일깨우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통도사는 해남 스님을 율주로 내정하고 산내암자인 취운암에 율원을 설치하기로 임회의 승인을 받은

상태. 현문 스님은 "통도율원은 계행의 근본적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계행을 청정히 지켜나가는 청정 승가의 기풍을 드날리는데 역할을 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통도율원은 종단의 기본 교육기관을 이수한 비구 혹은 2005년 비구계 수계 예정자를 대상으로 3월 11일까지 입학 지원 접수를 받는다. (055)382-7182

천미희 기자



넓은 세상으로... 동국대 18일 졸업식 열어

조계종립 동국대학교는 2월 18일 2004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학위 수여식장에서 홍기삼 총장은 졸업생들에게 "개교 99주년을 맞는 동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길 바란다"며 졸업을 축하했다. 사진은 졸업하는 스님과 신도들이 정각원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이다. 사진=고영재기자

“공직인사 적극활용의 길 찾길”

중앙정부청사 불자회 임원 법장 스님에 건의



중앙정부청사 불자회 임원진이 2월 15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박재원 기자

중앙정부청사 불자회 임원진이 2월 15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예방해 공직인력 적극 활용을 건의했다.

국민회 중앙인사위원회 불자회 회장(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총괄팀장)은 건의서를 통해 "유능한 공직인력의 적절한 활용으로 전문 인력 확보와 사찰관리인력 또는 불교의 호세력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회장에 따르면 현재 공직에 있거나 퇴직한 공무원들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재능을 구비한 인력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회장은 "종단차원의 기획과 정책 수립 후 시행하며, 활동의 근거와 명분을 분명히 해주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중양 행정자치부 불심회 고문(한국행정연구원장), 신기운 행정자치부 불심회 회장(행정자치부 정부혁신본부 프로세스 혁신팀장), 김우호 행정자치부 불심회 회장(중앙인사위원회 인력개발국 능력발전과 서기관)이 배석했다. 남동우 기자

“영축총림 방장 20만여 성만한분을...”

전국선원수좌회 성명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공동 대표 합주 현산 인각)는 2월 15일 '영축총림 방장추대'와 관련해, 총림법에 충족되는 방장을 추대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선원수좌회는 성명서에서 "본사 주지 추천권 행사 등의 정치권력적인 면만 염두에 두고 방장을 선임한다면, 방장의 위상과 책무는 거리가 먼 것"이라며 "총림법에 명시된 20만여 이상 성만한 분을 선출하라"고 밝혔다.

수좌회는 또 "영축총림이 산중총회에서 종현·종법에 저촉되는 분을 방장으로 추천할 경우, 대응단체를 높여가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통도사는 28일 오후 1시 설법전에서 방장 추대를 위한 산중총회를 연다. 김철우 기자

호 소 문

부처님을 섬기는 모든 불자들에게 호소합니다.

저희들은 재단법인 선학원의 분원사찰인 부산 기장군 묘관음사의 2천여 신도들입니다.

죄송스럽게도 신도들이 감히 하늘과 같은 주지스님 인사와 관련해 말씀을 올리게 된 것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저희 사찰에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재단법인 선학원이 임명한 신임 주지스님은 20여년간 묘관음사의 주지 책임자

- 여성문제로 저희 묘관음사 주지를 중도하차하시고 큰스님께서 불사에 쓰라고 남겨 놓으셨던 금을 비롯해서 돈 필만한 것은 죄다 가지고 아반도주를 하신 것으로 알려진 분
- 출가까지 했던 그 여성이 자살을 시도하고 끝내는 운명을 달리해 주변 지역 주민들로부터 부처님을 섬기는 일을 부끄럽게 만드신 분
- 쫓겨나서도 자신의 영달을 위해 어버이 이사 스승을 저버리고 다른 스님의 제자로 건강담 덕에 몇몇 사찰의 주지를 역임하신 분

이런 분이 다시 묘관음사의 주지로 오신다니 저희 묘관음사 2천여 신도들은 정말 부끄러워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할 지경입니다.

묘관음사 인근 정안읍 임랑마을 주민들조차 20여년간 이 분의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스님께 탄원서를 제출, 주지 선임을 재고 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나서서 등 인근 마을까지 운동 이수한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이 분의 과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만큼 혹여나 묘관음사에 이 같은 분이 주지로 오셔서 관광객들이나 참배객들에게 마올은 물론 전통 사찰로서의 묘관음사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키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스님은 물론 묘관음사 향곡문도회 대표 해운스님 두분 다 저희들에게 다른 스님을 주지로 추천하시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약속하신 바 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계십니다.

사부대중앞에 스님의 수행자답지 못한 결격사유와 신도들의 강력한 반대를 이유로 주지선임을 취하하겠다고 서약해 놓고도 먼 산만 쳐다보고 계시는 그 분들의 태도에 대해 저희 2천여 신도들은 정말 큰 실망을 감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자들이 이렇게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을 알면서도 신문 지상을 통해 호소하고 나선 것은 바로 이 분들의 방관자적 태도 때문입니다.

묘관음사는 한국 큰스님의 도반이신 성철스님께서 기거하셨으며 전국의 많은 수좌 스님들이 두 큰스님의 발자취를 따라 동안거 하던 거 수행하시는 선방이 자리한 청정 수행도량입니다. 작지만 아담한 도량에는 사계절 아름다운 꽃이 피고, 향곡산사의 가르침을 받아 부처님의 청정 계율을 지켜온 사찰입니다.

이런 곳에 묘관음사를 피탄에 빠뜨리고 자신의 영달만을 추구한 스님이 후임 주지로 다시 오셔서, 선방을 지키시고 부처님 말씀을 설법하신다니 저희 신도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묘관음사는 한국 큰스님의 유지를 받들고 작지만 정성스런 신도들의 염원을 모아 불사를 이뤄오는데 부족함이 한 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그 분의 부끄러운 행적을 씻어내는데 많은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제 세월의 드리움으로 그 부끄러움을 겨우 가리웠다고 자위하고 있는데 생각도 하기 싫은 과거로 되돌아가라 하시니, 또 다시 너무나도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고야 말 것입니다.

부디 재단은 저희 2천여 묘관음사 신도들의 애끓는 불정을 받아 주셔서 덕망있는 스님으로 현주이시던 해원스님으로 재선입토록 강력한 지지를 하달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신도들이 이 사실을 알고 나서게 된 이상 주지스님 추천권을 갖고 있는 향곡문도회 큰 스님들도 저희들의 간곡한 열망을 반영해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이미 2차에 걸친 서울 인국동 선학원 향의 방문을 통해 우리 신도 불자들의 뜻을 재단에 전달한 바 있고 재단측은 재검토 의사를 밝혔습니다. 만약 우리신도 불자들과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시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 강력한 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지면을 통해 밝히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 호소문을 접하신 모든 불자님들도 부처님을 따르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 동참 바랍니다.

불기 2549(2005)년 2월

재단법인 선학원 분원 묘관음사 신도회 산하 관음회 신장회 문수회 인등회 영산회 법우회 반야회 2천여 신도 일동